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의 상관성 연구

최종덕*, 김진경**, 이택영**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Korea Aptitude Development(KAD) 인성검사는 학과에서 학생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적성개발원에 단체로 의뢰하여 2008년 4월 30일에 실시되었다. KAD 인성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중 연구에 동의한 50명을 대상으로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AASP)을 실시하였다. AASP는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이 완성되면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은 총 15분 소요되었다. 분석에는 AASP와 KAD 인성검사를 모두 실시한 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성인의 AASP 유형을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AASP 유형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AASP 유형과 KAD 인성검사와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AASP 유형과 KAD 인성검사의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r=-.32$)과 정서($r=-.34$)와 상관성이 있었고($p<.05$), 감각 찾기와 감각 민감성은 지도력과 각각 r 값이 .31, $-.34$ 의 상관성을 나타냈다($p<.05$).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인성발달에 감각 처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감각 처리 능력에 문제를 가진 성인이나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감각 통합 치료 적용에 따른 대처 기술,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감각 처리 유형, 인성

I. 서 론

감각 처리 능력은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극을 조직화하여 환경 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생리학적인 과정이다. 감각 처리 능력은 개인과 환경사이에서 교량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함에 따라 개인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게 된다(Brown & Dunn, 2002). Dunn(2001)에 의해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sensory processing styles) 모델이 소개되면서 성인

에서의 감각 처리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감각 처리 유형을 감각 민감성(sensory sensitivity), 감각 회피(sensory avoiding), 감각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 감각 찾기(sensory seeking)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감각 처리 이론을 개인의 감각 역치와 개인의 행동 반응 전략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rown & Dunn, 2002; Hofmann & Bitran, 2007; Jerome & Liss,

2005; Liss, Timmel, Baley, & Killingsworth, 2005). 이 연구들에서는 감각 처리 유형 중 특히, 감각 민감성은 불안, 우울, 애착과 상관성이 있으며, 낮은 역치 수준은 자극에 필요 이상 반응을 유발하게 되어 아동과의 애착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기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Brown과 Dunn(2002)은 감각 찾기는 타인에 대한 접근성(approach)과 개인의 기분조절과 상관성이 있고, 감각 민감성은 개인의 기분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감각 회피는 적응능력, 접근성, 기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감각 민감성과 감각 회피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환경에 대한 부적응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들에서는 감각 처리 능력이 인성(personality) 형성에 중요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Burns(1979)는 인성은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 특유의 특성이나 행동 양식의 전체적인 통합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인성이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인상으로, 개인의 생리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형성되며, 환경이나 학습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의 형성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크게 네 가지 모형이 성격 특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황연정, 2000). 첫 번째 요인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유전적 소인, 기질, 신체적 외모, 성숙도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요인은 그 문화의 가치체계, 기대하는 행동 양식, 요구되는 역할, 생활 방식 등으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내면화 시키고 자신의 일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성이 형성되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은 상황요인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개인의 직접적 자극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경험인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경험은 인성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 경험은 인성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인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Ryff와 Singer(1998)는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는 성인과 어린이의 경우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 리더쉽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하였고, Kagan(1994)도 인간관계 기술 부족이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성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ron과 Aron(1997)은 내성적 성향과 감정적 반응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는데, 민감성이 높을수록 내성적 성향은 증가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기분 장애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외국에 국한되어 그 수가 제한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국내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진경, 최종덕과 이택영(2007)의 연구에서도 외국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국내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및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감각 처리 능력은 적응 능력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일반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남 지역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Korea Aptitude Development(KAD) 인성검사와 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AASP)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신경학적·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 받지 않은 성인 남녀
- 2) AASP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며, AASP와 KAD 인성검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 3)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남녀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세(21세~26세)이었고, 총 50명(남자 10명, 여자 4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 도구

- 1)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Adolescents/Adults Sensory Profile: AASP)

Brown과 Dunn(2002)에 의하여 개발된 AASP는 6개의 영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과 문항을

살펴보면 미각/후각처리 8문항, 동작 처리 8문항, 시각처리 10문항, 촉각 처리 13문항, 활동 수준 10문항, 청각 처리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문항에 대해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almost never)’가 1점, ‘항상 그렇다(almost always)’는 5점으로 기록한다. 60문항들은 결과해석을 위해 다시 역치 수준과 행동반응에 따라서 다시 4개의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감각 등록 저하(low registration) 유형은 역치는 높고, 역치에 대한 수동적 행동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자극들을 무시하는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감각 찾기(sensory seeking) 유형은 높은 신경학적 역치 수준을 채우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나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능동적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 감각 민감성(sensory sensitivity) 유형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따른 수동적 행동 반응으로, 산만하고 감각 자극을 싫어하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감각 회피(sensory avoiding) 유형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을 나타낸다. 개인의 점수는 이 4개의 유형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고 분포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감각 처리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총점을 구한 후 해당 점수되는 점수분포에 따라서 결과를 해석한다. AASP의 Cronbach α 값은 연령이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4~.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김진경(2007) 등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 Korea Aptitude Development(KAD) 인성검사

KAD 인성검사는 한국사회적성개발원(1983)에서 순수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의 적성에 맞게 개발한 인성검사로 검사자의 심리상태와 사회적 인성형성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향과 지적인 능력 그리고 기호 관심 흥미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는 크게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적응적성검사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성검사 부분만이 사용되었다. 인성검사는 대분류 9개, 소분류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성실성, 건강상태, 근면성, 솔직성, 성취성, 책임감, 사회성, 대인관계, 협동성, 능동성, 적극성, 자주성, 자신감, 섭외력, 지도력, 규율성, 신뢰성, 준법성, 신경발달, 순수성, 감정, 정신건강, 행동안정, 정서, 인내력, 침착성, 집중력). 검사방법은 문답식 “예”, “아니오”의 방식과 도형에 의한 허위응답방지 그리고 선택형 문제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인성검사 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점수 분포에 따라 A+에서부터 E 등급으로 인성을 표시하는데, D 등급(40점 이하)이면 인격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Cronbach α 값은 .63~.87이었다.

3. 연구 과정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AASP와 KAD 인성검사를 실시하였다. KAD 인성검사는 학과에서 학생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적성개발원에 단체로 의뢰하여 2008년 4월 30일에 실시되었다. KAD 인성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중 연구 대상자 선정 조건에 일치하는 50명을 대상으로 AASP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AASP를 직접 나눠주고 문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였고, 설문 이 완성되면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은 총 15분 소요되었으며, 분석에는 AASP와 KAD 인성검사를 모두 실시한 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분석 방법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성인의 AASP 유형을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AASP 유형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AASP 유형과 KAD 인성검사와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 11.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α 는 .05로 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AASP 점수 결과는 표 1과 같다. 감각 등록 저하는 평균 34 ± 6.9 점, 감각 민감성은 평균 38 ± 7.23 점, 감각 회피는 평균 37 ± 5.4 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Similar to Than Most People) 반응양상을 나타냈다. 감각 찾기는 평균 37 ± 7.7 점으로 대부분

의 사람들 보다 조금 덜 한(Less Than Most People) 양상을 나타냈다.

2. 성별에 따른 감각 처리 유형 비교

성별에 따른 감각 처리 유형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감각 등록 저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감각 찾기,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에서 여성들의 점수가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3. 성인의 인성 점수

KAD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각 항목별 인성점수를 산출한 결과, 보통에서 보통 상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3).

4.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의 상관성 비교

AASP 유형과 KAD 인성검사의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r=-.32$)과 정서($r=-.34$)와 상관성이 있었고, 감각 찾기는 지도력($r=.31$)과 상관성 있게 나타났다($p<.05$). 감각 민감성 역시 지도력($r=-.32$)과 상관성이 있었다($p<.05$) (표 4).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와 환경에 대한 적응반응이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와 적응기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과 정서와 상관성이 있었고, 감각 찾기와 감각 민감성은 지도력과 각각 상관성을 나타냈다.

감각 처리 유형에서 각 유형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감각 등록 저하(34점), 감각 민감성(37점), 감각 회피(38점) 유형의 점수는 평균 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감각 찾기 유형 점수만 평균 보다 낮게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덜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진경 등, 2007). 이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좀 더 확실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ASP의 표준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감각 처리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각 등록 저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 군에서 성별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별이 감각 처리 유형에 미치는 영향

표 1. AASP 평균 점수

(N=50)

감각 처리 유형	평균 $\pm$ 표준편차	점수 해석
감각 등록 저하	34 $\pm$ 6.9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감각 찾기	37 $\pm$ 7.7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덜함(-)
감각 민감성	38 $\pm$ 7.2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감각 회피	37 $\pm$ 5.4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

표 2. 성별에 따른 AASP 유형별 점수 비교

감각 처리 유형	남(10)	여(40)	p
	평균 ± 표준편차(점)		
감각 등록 저하	36 ± 7.5	34 ± 6.8	.85
감각 찾기	35 ± 9.0	37 ± 7.4	.94
감각 민감성	35 ± 6.3	39 ± 7.3	.40
감각 회피	36 ± 5.0	38 ± 5.5	.17

은 기존 연구들(Hofmann & Bitran, 2007; Jerome & Liss, 2005)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결과 비교에 제한적이었다.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의 상관성 비교에서는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r=-.32$)과 정서($r=-.34$)와 관련이 있었다.

감각 등록 저하는 높은 역치수준과 수동적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역치 수준이 높고, 수동적일수록 감정과 정서의 발달을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감각 등록 저하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 억압과 반복적 실수,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불

표 3. KAD 인성검사 점수

(N=50)

항목 등급	성실성 건강상태 근면성	솔직성 성취성 책임감	사회성 대인관계 협동성	능동성 적극성 자주성	자신감 섭외력 지도력	규율성 신뢰성 준법성	신경발달 순수성 감정	정신건강 행동안정 정서	인내력 침착성 집중력
점수 ^a	53 ± 20	55 ± 15	60 ± 13	61 ± 19	61 ± 16	50 ± 15	68 ± 20	63 ± 15	56 ± 17
A+최우수									
A 우수									
B+ 준 우수									
B 보통 상									
B 보통									
C 보통 하									
D 낮음									
E 매우 낮음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	의욕 부족 불안감 건강불량	책임 회피 공포감 변명평계	이기적 우울감 관심부족	의존적 강박관념 과잉보호	내성적 수줍음 우유부단	저항 불신감 부정적	욕구 억압 실수반복 신경질적	감정 억압 불쾌 신경과민	목표 의식 관심흥미 등의 부족

^a: 평균±표준편차

표 4. AASP와 KAD 인성검사의 상관성

(N=50)

항목 유형	성실성 건강상태 근면성	솔직성 성취성 책임감	사회성 대인관계 협동성	능동성 적극성 자주성	자신감 섭외력 지도력	규율성 신뢰성 준법성	신경발달 순수성 감정	정신건강 행동안정 정서	인내력 침착성 집중력
낮은 감각등록	.01	.04	.01	.07	.31	.06	.32 [*]	.34 [*]	.24
감각 찾기	.37	.23	.27	.04	.31 [*]	.21	.22	.10	.14
감각 민감성	.04	.18	.09	.10	.34 [*]	.01	.02	.04	.27
감각 회피	.07	.13	.02	.12	.16	.12	.19	.24	.27

* p < .05

쾌감을 호소하며 신경과민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감각 처리 유형과 부모와의 애착, 대처유형(coping style)과의 관계를 분석한 Jerome과 Liss(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감각 등록 저하는 불안과 회피반응과 상관성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 애착 형성과 관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감각 등록 저하는 대처유형에서 부인(denial), 정신·행동적 부적합 반응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감각 등록 저하가 정서와 감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감각 찾기는 인성 항목의 지도력과 상관성($r=.31$)이 있었는데, 이는 역치가 높고, 적극적인 행동 반응을 보일수록 자신감과 지도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역으로는 감각 찾기 점수가 낮을수록 내성적, 수줍음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Jerome과 Liss(2005)의 연구에서는 감각 찾기는 대처유형의 부인, 감정 배출, 감정적 지지를 요구하는 행동, 감정의 긍정적 재해석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감각 찾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aine, Reynolds, Venables와 Mednick(2002)은 감각 찾기 행동을 자신의 각성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기술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감각 민감성 역시 자신감과 지도력과 음의 상관성($r=-.34$)을 나타냈는데, 역치가 낮고 수동적일수록 수줍음과 내성적 성향을 보이고, 우유부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각 민감성은 사회 공포증과 인격 장애 환자에서의 불안증과 관련이 있고, 감각 민감성이 높을수록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Jerome과 Liss(2005)의 연구와 Meyer, Ajchenbrenner와 Bowles(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각 찾기와 감각 민감성이 공통적으로 지도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감각 민감성을 낮추고, 자신의 각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동 양상을 나타낼 때 자신감과 지도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각 회피는 인성 검사의 세부항목과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Jerome과 Liss(2005)의 연구에서는 감각 회피가 불안과 회피반응과 상관성이 있어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각 회피와 대처유형과의 비교에서는 감각 회피가 낮은 역치 수준에 대한 자신의 각성을 조절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 반응임을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회피 유형의 사람들은 대처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에게 발생한 어떠한 상

황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기술 발달이 생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상자의 성별 편차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감각 처리 유형과 여러 연구에서 제시했던 불안이나 그 이외의 심리학적 검사들을 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성인의 감각 처리 유형이 개인의 지도력, 감정, 정서와 같은 인성 요인과 관련성이 있고, 인성 발달에 감각 처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감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 통합 치료 적용에 따른 감각 처리 유형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감각 처리 유형과 인성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과 정서와 관련성이 있었고, 감각 찾기와 감각 민감성은 자신감 및 지도력과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성발달에 감각 처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감각 통합 치료 대상자의 영역 확대와 더불어 감각 처리 능력에 문제를 가진 성인이나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감각 통합 치료 적용에 따른 대처기술,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진경, 최종덕, 이택영. (2007). 성인의 감각처리에 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3), 117-125.
- 한국사회적성개발원. (1983). *Korea Aptitude Development* 인성검사. 2009년 9월 20일 출력. <http://www.qtest.co.kr>
- 황연경. (2000).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성격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 여자대학교, 서울.
- Aron, E. M., & Aron, A. (199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introversion and

- emot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45–368.
- Brown, C., & Dunn, W. (2002). *The adult sensory profi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urns, R. B. (1979). *The self-concept theory in measurement, development and behavior*. London: Longman.
- Dunn, W. (2001). The sensation of everyday life: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6), 608–620.
- Hofmann, S. G., & Bitran, S. (200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in social anxiety disorder: Relationship to harm avoidance and diagnostic subtyp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7), 944–954.
- Jerome, E. M., & Liss, M. (2005).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8), 1341–1352.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Liss, M., Timmel, L., Baley, K., & Killingsworth, P. (2005).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8), 1429–1439.
- Meyer, B., Ajchenbrenner, M., & Bowles, D. P. (2005). Sensory sensitivity, attachment experiences, and rejection responses among adults with borderline and avoidant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6), 641–658.
- Raine, A., Reynolds, C., Venables, P. H., & Mednick, S. A. (2002). Stimulation seeking and intelligenc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663–674.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s and Personality

Choi, Jong-Duk^{*}, Ph.D., P.T., Kim, Jin-Kyung^{**}, Ph. D., O.T.,

Lee, Taek-Young^{**}, Ph. D., O.T.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ports Science, Daejeon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bjective :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ASP and KAD were examined.

Methods : AASP and KAD were executed for 50 healthy adults between the ages of 21 and 26. KAD was conducted by requesting its execution from a professional company. KAD was carried out in April of 2008. AASPs were distributed directly to the participants and collect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adult sensory processing, and a comparison of sensory processing styles of males and females was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Relativity between the AASP and KAD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ASP and KAD, low sensory registr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ntiment and emotion ($p<.05$). With leadership, sensory seek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and sensory sensitiv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p<.05$).

Conclusion : Passive behavioral responses associated with a high neurological threshold can be a factor disturbing the development of personal sentiment and emotion, and a low threshold can cause shyness and introverted tendencies. Also, active behavioral responses associated with a high neurological threshold can improve self-confidence and leadership. It can be confirmed that sensory processing can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personality development.

Key words : Personality, Sensory Processing Styles